



산불 피해지 생태계 회복 기간

※출처 : 강원석 등, 2022, 산불피해지 복원, 국립산림과학원

05

우리나라 역대 최대였던 2000년 동해안 산불은 어떻게 복원했나요?

A 2000년 동해안 산불은 2000년 4월 7일부터 15일까지 강원도 고성군, 강릉시, 동해시, 경상북도 울진군에 걸쳐 동해안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산불로 여의도 면적의 약 82배인 총 23,794ha의 산림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 규모가 역대 최대인 만큼 민·관·학·연 공동조사단 176명이 생태, 사회·경제적 측면, 복원방법 평가 등 9개 분야에 대해 조사하였고, 복원 절차와 의사결정 흐름도를 만들어 복원사업을 수행했습니다. 당시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두 차례의 협의회 및 네 차례의 지역공청회를 개최하여 국민안전, 송이생산, 경관복원 등 사회정책적 요소를 우선 고려하고, 복원방법 선정 시 피해 정도와 입지 조건을 고려하여 조림복원 51%, 자연복원 49%의 비율로 2000년 동해안 산불피해지 복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때 만든 복원 절차와 의사결정흐름도는 그 후 거의 모든 산불피해지 복원사업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두백산과 오음산의 전경(1997년)



두백산과 오음산의 전경(2015년)



송지호 주변 피해목정리를 마친 전경(1997년)



자작나무와 소나무가 조림된 전경(2015년)



산불피해 후 왕곡마을 근처의 전경(1997년)



왕곡마을 근처의 전경(2015년)



산불 피해 직후 운봉산동쪽 봉우리 전경(199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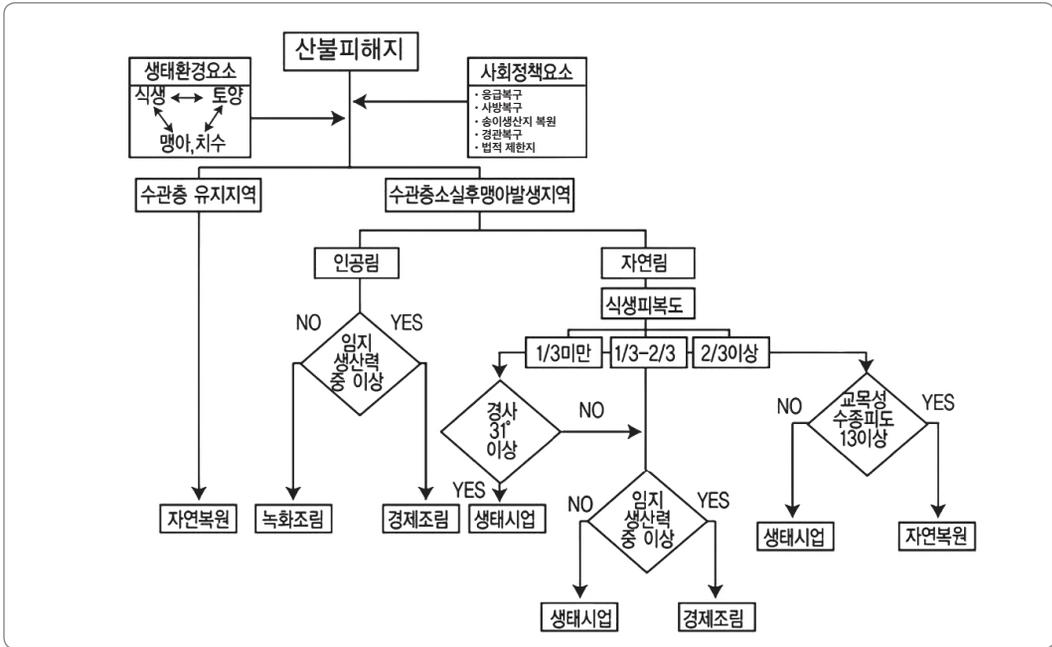
운봉산동쪽 봉우리 현재 전경(2015년)



산불피해 후 실행한 사방복구 조림지(1997년)



사방복구 조림지의 전경(2015년)



2000년 동해안 산불피해지 복원 의사결정 흐름도

06

2022년 울진·삼척 산불 피해지는 어떻게 복원했나요?

A 2022년 3월 4일부터 3월 13일까지 10일간 지속된 울진·삼척산불로 울진과 삼척지역 16,302ha 면적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후 산림청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국립산림과학원,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참여하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성, 드론 등을 통해 산불피해지 경계와 산불피해 정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산불피해 정도에 따라 복원 대상을 구분하여 복원을 준비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산림청은 「산불피해 복원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이해당사자와 8차례의 보고회와 자문회의를 통해 복원대상, 긴급벌채, 복원방법, 내화수림, 양묘계획, 소득사업, 부산물처리, 산림기능별 복원 등에 대한 합리적인 복원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림복원 49%, 자연복원 51%의 비율로 산불피해를 복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피해지 중 울진 금강송 군락지 주변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4,743ha에 대해서는 생태복원을 적용하여 자연복원을 위주로 복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